

## 2006년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아쉽고, 즐거웠던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이제 2006년 한해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작년 이맘때쯤 느꼈던 느낌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워진다. 특히, 2006년 올해는 우리 학회의 30주년이 되는 해였기에 전무로서 더욱 어깨가 무거웠었다. 처음 김봉식 회장님께서 나를 Running mate 형식을 취하지도 않은 채 덩석 전무 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는 큰 부담감이 나를 힘들게도 하였었다. 한편, 학회 30주년 기념사업으로 국제 심포지움 및 추계학술대회를 동시에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기에 업무 한 가지를 벗었다고 생각하여 한결 마음이 가볍기도 하였었다. 그래도 전무이사로서 심포지움 사무국과 추계총회 관련 업무에 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니 우리 인간의 눈이 가장 게으르고 손발이 가장 부지런하다는 말을 하는가 보다.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한해가 가버렸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는 전무이사 조재영 교수가 워낙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총무이사로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뒷 칸에서 업무 방법 등만 지켜봐 왔었고, 내년의 운영이사를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지명하여야 30주년 기념사업 등을 잘 진행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었고, 그리고, 30주년이 되면 학회 차원에서 기술지 특집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야하나 걱정이 앞섰었다. 丙戌年 새해가 밝자마자 춘계총회 관련 일들과 기타 학회 수익사업들 그리고 서비스 사업들을 30주년 기념사업과 어떻게 관련지를 것인가가 걱정되었고,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 30주년 특집호를 어떻게 꾸밀까? 걱정했었다.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무리할 때가 된 것이다. 특히,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하여 주신 (주)화승인더스터리 김영인 사장님과 (주)제닉의 유현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일련의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금오석유화학(주), 금호타이어(주), LS전선(주), 미래나노텍(주), KD Chem(주) 및 (주)신코 등의 회사 역시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러한 여러 회사들의 도움으로 KINTEX에서 개최된 춘계총회에서 참석하신 모든 회원 분들에게 키희터를 하나씩 선물할 수 있었던 기억이 가슴 속을 뿌듯하게 한다. 한편, 30주년 특집호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걱정했었지만 편집이사들인 허완수 교수, 이성구 박사, 조동환 교수들의 협조로 원만히 이루어져 앞으로 귀중한 학회의 자료집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30주년 기념 고분자 대토론회도 제주의 그랜드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 정말 기분 좋았다. 또한, 국제심포지움에서 김성철 조직위원장님, 안광덕 학술위원장님, 및 이두성 사무총장님의 탁월한 리더쉽과 사무국 운영이사들의 원활한 협조로 성공리에 추계학술대회와 더불어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된 것으로 우리학회의 국제위상을 높일 수 있었기에 즐거웠고, 고분자아카데미에 많은 회원들이 해마다 참가하는 것을 볼 때 확실하게 사업이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다. 아쉬운 것은 이번 3개학회가 주관하여 개최되는 산·학·연 심포지움이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 때문에 개최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화연에서 개최된 기기분석세미나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휘날레를 멋있게 장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싶다. 김봉식 회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이사님들과 학회 사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30주년 기념 해의 전무이사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어 매우 행복하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안>